

2. 순천 농민운동과 지역사회의 동향

순천 농민운동은 1922년 12월 서면에서 시작된 농민집회가 전군에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면별 농민대회(農民大會)가 조직된 데에서 출발한다. 농민대회들은 소작료를 4할로 인하하고 지세

를 지주가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했다. 이어 먼 농민대표들을 망라한 순천농민대회연합회(順天農民大會聯合會)가 결성되어 운동이 더욱 조직화되었다.

순천의 농민운동은 인접 군 및 남선(南鮮)의 여러 조직의 움직임과 연결되면서 민중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공동경작동맹'을 통해 지주들의 탈작(奪作) 공세에 대응하여 소작인들의 토지점유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교육과 각종 사업을 통해 소작인들의 단결을 고취하고 운동의 의의를 각인케 하는 장기적인 활동도 벌였다. 특히 1924년에 들어서는 순천 농민운동의 지도층이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의 결성에 참여하게 되는 한편 운동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더 뚜렷해졌다. 운동의 지속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1925년 조직의 명칭도 변경했다. 즉, 일시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면단위 '농민대회'라는 명칭을 '농민회'로 바꾸고 '순천농민대회연합회'도 '순천농민연합회'로 개칭했다.

1924년부터 당국은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 공동경작동맹 등 농민회의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1926년에는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에 관련된 순천농민연합회의 지도인사들이 검거되었다. 1925년부터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던 농민운동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회원수의 현저한 감소를 경험한 순천농민연합회는 1929년 명칭을 '순천농민조합'으로 개칭하고 면단위 농민회를 순천농민조합의 면별 지부로 재편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정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농민운동은 지속적으로 정체되었다.

이 시기는 공개적 농민운동의 정체와 병행하여 정예 인텔리들이 농민운동의 급진화·지하화를 전개하였다.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순천 인근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들은 1931년 광주에서 노동자·농민의 전위조직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전남노동농협의(全南勞農協議會)에 연결되었다. 당국은 이 조직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및 군소의 적색노동조합운동과 이리저리 연결해 수십 명의 활동가들을 검거했으며, 여기에는 광양·순천·별교의 좌익 지식인들이 여러 명 연루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검거선봉으로 말미암아 합법·비합법을 망라한 민중운동 전체가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된 순천의 농민조합은 1934년 해산을 선언하게 된다.

순천 농민운동의 시기별 전개는 지수결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개요만을 일단 소개하고, 더 자세한 언급은 순천 지역사회의 동향을 논하는 데 포함하고자

한다.